

큰스님 수행한담

밝은 내일 약속해요



월명스님은 8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묘적암(현 판은 서용스님 글씨)에 혼자 기거하고 있다.

이 잠시 계시던 절이기도 했고 법당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전쟁통에 불 타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춧돌 위에 법당을 다시 세우는 불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지방에서는 비구승들이 지나가면 욕을 하고 미워하는 시대였으니까요. 신도도 없는 절에 누가 불사시주금을 내겠습니까. 월명스님이란 분이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어설피게 만든 권선문을 들고 월명스님을 따라 나섰는데 부안군수와 군내 각면장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들이 제법 많은 돈을 내 놓았고 그런 바람에 열전하는 사람을 비롯한 지역 신도들도 심시일만으로 시주해 불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안거선객 10여명 한철 동안 ‘10악 참회’ ‘발원문’ 정진했더니 부안군내 범죄가 사라졌어요”

부안 안거절에는 10악참회와 발원문 정진을 참선수행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두번 있었습니다. 첫 해의 일입니다. 10명의 선객들이 모여 10악참회와 발원문 정진을 한철 했었는데 그때 부안군에는 여를 한철, 그러니까 3개월간 단 한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아 경찰들이 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알려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월명암에서 10명의 스님들이 참회정진을 석달간 한 공덕인가”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소문 덕에 월명암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고 기도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 참선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월명암이 이제는 참회도량으로도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회와 발원을 하던 중 어느 해에는 대중들이 참선수행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참회와 발원정진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선방에서 대중들이 하는 말인데 늙은이가 고집을 부리고 안 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의견 선방에는 대중들이 많이 찾아 오지도 않

군요. “갈 만한 곳도 없고 여비도 없어 여기 있다”고 했더니 그 스님이 꽤 많은 여비를 주더군요.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던 터라 잘 된 일이었지요. 그래서 발길 닿는대로 찾아 온 곳이 월명암입니다. 와보니 절은 말할 수 없이 퇴락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 옛 봉우리(쌍선봉) 아래 스님들의 유

불사가 다 되기 전에 나는 소공스님이란 분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고 지리산 토굴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세속 물정에 밝지 못한 내가 불사를 주도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불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소사로 가버려 월명암은 다시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동설한에 꽃을 준비한 봄나무처럼 중생들도 성불위해 항상 참회합시다”

꽃이 나뭇굴고 있다고 하더군요. 6.25전쟁 때 빨갱이들이 월명암 스님 4명을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인데 아무도 그 유골을 수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쌍선봉 아래로 가 보니 해골 4개가 나뭇굴고 있더군요. 주변에는 유골들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대로 수습을 하 회장을 하고 스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지냈습니다. 참으로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쪽상잔의 전쟁은 이 유서깊은 사찰에서 스님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까지 만들어 놓아야 했던 것이고 그 유골마저 몇년을 숲속에서 방글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해 겨울에 묘적암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 다음 해부터 월명암 발원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월명암은 학명(鶴鳴)스님

10년후에 다시 월명암을 찾아 기와불사를 하고 떠났다가 또다시 80년대 중반에 돌아왔습니다. 세번째로 월명암을 찾은 겁니다. 해남 달마산에 토굴을 짓고 앉아 있는데 무슨 인연인지 몰라도 당시 주지스님이 나를 데리러 왔기에 따라 왔습니다. 절이 제법 격을 갖추고 선방들이 있어서 결제철이 되니 10여명의 선객들이 찾아 오더군요. 나는 안거를 들며 선객들과 ‘10악참회’와 ‘발원문’ 정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세간에 있던 출세간에 있던 수시로 짓는 악업을 소멸시키지 않고 어떻게 성불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용선사의 발원문을 조소으로 되새기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잡아 나가는 것도 중요한 수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0여년전

는 시절이 아닙니까. 책들을 무릅쓰고 한마디 더 보태자면 해제비가 많고 적은 걸 따져가며 선방을 정하는 세대까지 왔던 소리가 들려오는 터라 내 고집을 내세울 처지가 못됐던 겁니다. 그런데 안거 한달이 지나고 서울에서 신도들이 승합차를 타고 절을 찾아 오다가는 눈산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한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대중들에게 첫째 참회 발원정진을 했던 일과 부안에서 3개월간 범죄가 없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도량을 옹호하고 우리 승단을 돌보는 신장님의 가피력이 없다면 할 수 없고 우리가 참회 발원 정진을 하는 바른 뜻이 자리아타의 보살행을 실천하자는데 있음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라

4와 경전



대승기신론



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

《대승기신론》은 마명보살이 중생들이 대승에 대한 심신을 일으키게 하려고 저술한 논서이다. 경전에서는 말하기를 “불법대해에는 오직 심신만이 들어 갈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심신이야말로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모체이다”라고도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이란 대승법을 믿는다는 뜻이며, 대승법이란 우리를 중생심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든 중생들의 마음은 본래 진여정등심이며, 보리심이고 대비심이다. 그러나 무지 일념무명이 허망하게 요동을 쳐 ‘삼세유택’이 일어나 본래 있던 중생심과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허망한 심신과 세계가 한 번 일어나자 생멸멸생이 중중무진으로 떠돌아다니다가 한량없는 생사고해에 침몰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생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가 다하도록 겪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인 것이

다. 이처럼 모든 언설상을 떠난 진여자체를 얻어 버렸다는 의미에서 ‘이언진여(離言眞如)’라고 한다. 이것이 곧 법신이고 불성이고 법성인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떠난 ‘이언진여’를 굳이 언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그곳엔 청정한 공덕법이 만족하여 무릇의 성공력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으므로 언어를 의지한 진여공덕상이라는 의미인 ‘의언진여(依言眞如)’라고 하는데 이는 언설로 진여의 체상용을 설명할 수 있음을 말한다. 요컨대 이러한 중생심, 즉 진여심이 근본바탕이 되어 이 마음이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중생의 일어나자 생멸멸생이 중중무진으로 떠돌아다니다가 한량없는 생사고해에 침몰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생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가 다하도록 겪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인 것이

“중생이 부처” 전하는 대승입문서 만법의 ‘생기환멸’ 철저히 밝혀

다. 마명보살은 이러한 중생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대비심 때문에 이 논서를 지어 모든 중생들 자신의 참모습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믿고 생각하고 영위히 쉬게 하려 하였던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말하기를 “부처님은 일대사인연 때문에 세간에 출현하셨다”라고 하였는데 그 인연이란 다음아닌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인 이치를 전수하는 ‘이심전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보살이 본 논서를 지어 중생의 마음을 열어 주고 깨닫게 하는 일도 기실 이심전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승기신론》의 문장은 간략하면서도 뜻이 풍부하며 매우 조적적이다. 전체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종분은 다시 인연분 입문분 해석분 수행심심분 권수이악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이론적 측면은 주로 해석분에서 살펴지고 있으며, 실천수행의 측면은 수행심심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모든 중생들의 본래적인 참모습인 진여심을 나타내는데 있다 하겠다. 즉 중생이 처한 무상한 현상세계에서 진여법체는 항상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진귀한 성품이라는 것이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복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총명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소재
· 팔괘: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양미늘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45cm x 45cm

신비한 작용

첫째 가장,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운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방마다 갈아놓았던 등관을 모두 건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복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람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에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 책자 내용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업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甘露·街路茶 감로와 감로차

부처님 오실 때 하늘이 단이슬(감로 甘露)을 내려 불탄을 축복했으며, 감로를 부처님께 이슬처럼 뿌려 부처님을 축복하고 발원하여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감로에는 천연방부제와 천연방미제(곰팡이 방지) 성분이 있어서 옛부터 부처님 목욕을 시키는 관불회(灌佛會)때 성수로 감로차수(甘露茶水)를 사용했고, 국어사전에 「감로차는 부처님께 올리는 달고 정한 차」라고 되어 있듯이 감로는 불교의 성수입니다.

※ 감로는 비당성 천연감로차(非糖性 天然甘露茶)의 추출액입니다.
◆ 특약점 및 남녀 영업사원 모집
동우산업(주)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번지 1219호
전화 : 02)3675-5959
FAX : 02)3675-5958